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 여행'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상황 점검... 축제 세부일정·프로그램 준비 상황 등 공유

무주군은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개최 한 달여를 앞두고 본격적인 추진상황 점검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상황 보고회에는 황인홍 군수를 비롯한 각국·실·과·소·읍·면장과 반딧불축제지원단 각 분야 팀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프로그램 세부일정 및 현황, 축제장 공간배치, 편의시설 및 환경조성, 축제운영 및 행정지원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각 분야·부서별 역할 및 프로그램 등 준비 상황과 계획, 그리고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황인홍 군수는 "축제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며 "그동안 축제지원단이 구성이 되고 추진전략과 그에 맞는 프로그램, 그리고 행사장 구성 등 전체적인 방향이 정해진 만큼 개최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히 이번 축제는 마스크를 벗고 만나는 첫 축제라 기대도 크지만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인 확산조짐을 보이면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도 이 부분 염두에 두고 행사장 방역 등 예방 활동에도 주력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는 △바가지요금 없는 축제, △일회용품 없는



무주군은 지난날 31일 무주군청 대회의실에서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다.

축제, △안전사고 없는 축제 등 '3무(無) 축제'로 개최하기로 한 만큼 각 부문에 대한 점검과 실천을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전략과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운영, 진행, 대내·외를 아우르는 전방위적 홍보까지 신경을 써서 전라북도 대표축제, 대한민국 대표 환경축제의 면모를 보여주자"고 말했다.

덧붙여 "보이지 않는 사소한 부분들이 무주반딧불축제와 무주의 가치, 그리고 명성을 결정짓는 요소"라며 "결국은 주민들 한 분 한 분까지 무주군 전체가 한마음이 돼야 축족이 되는 부분인 만큼 내부적으로 축제분위기 조성과 마인드 함양에 더욱 주력해줄 것"을 주문했다.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 여행'을 주제로 오는 9월 2일부터 10일까지 9일간 개최될 예정이다. '반딧불이 신비 탐사', '1박 2일 생태탐험' 등 주요행사 외에도 역동적인 축제를 위해 '차이리딩 페스티벌'과 '청소년 '끼' 페스티벌', '신(新) 물벼락 페스티벌' 등 젊은 층이 참여하고 즐길만한 프로그램들을 다수 신설했다.

이외에도 개막식 입장 퍼레이드와 먹거리 장터, 농·특산물 판매, 버스킹 공연 등 지역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태권도의 날, 명사 초청 만디토크 콘서트, 트롯의 날 등 주중 프로그램을 마련해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들, 진안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



진안군은 지난날 31일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사전·사후기간에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들이 2회에 걸쳐 관내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체험 행사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 참여하는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농촌체험마을을 체험 및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전북 농촌문화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HoHo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관내 농촌휴양마을 2개소가 선정돼 진행된다. 이날 신약초타운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는 전춘성 진안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자들이 함께 모여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을 환영하고, 진안고원 모자와 진안군 캐릭터 배낭 키링 홍보 물품을 전달했다.

1차 프로그램은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진안을 원연장 꽃잔디마을과 외사양 마이산에코타운에서 열리며 42명의 잠비아·포르투갈 대원들이 방문하여 2박 3일 동안 농촌 지역연계체험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참석자들은 △원연장 마을에서 진안의 대표 관광지인 마이산 탐사, 꽃잔디

동산과 연화부수형인 마을의 지형에서 착안한 연꽃밭, 원연장 저수지 물레길, 용담댐 물 문화관 관람 및 윤일암반일안 출렁다리 관광, 연일과 목화 도장을 이용한 스카프 만들기 체험을 경험하며 △외사양 마을에서는 마이산 데크길 연인의 길 산책, 하가막 마을의 울무밭 자연방상과 색다른 카누 타기 체험, 마조마을 풀놀이, 도장지갑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색다른 음식을 경험하는 시간을 갖는다.

2차 행사는 8월 12일부터 8월 14일까지 열리며 40명의 르완다, 조지아, 도미니카공화국 대원들이 방문하게 될 예정이다.

전춘성 군수는 환영식에서 "이번 세계잼버리대회 외국인 스카우트 대원들의 방문을 통해 진안군을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 무척 기쁘게 생각한다"며 "외국인 방문객들이 지역의 관광자원과 체험휴양마을의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며 행복하고 뜻깊은 추억으로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진 추가 피해 선제적 대응

장수군, 긴급 상황판단회의 갖고 방안 논의·비상근무체제 유지

장수군은 지난날 29일 오후 7시 7분께 장수군 천천면(북쪽 17km 지역)에서 규모 3.5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신속하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이날 지진 발생 직후 송주섭 부군수 주재로 긴급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피해 상황 파악과 필요시 긴급조치방안 등을 논의했다.

31일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올해 발생한 지진 중 세 번째로 큰 규모로 현재까지 주택 균열 등 피해 신고가 5건 발생했다.

이에 군은 지난 7월 28일부터 반암면 방화동자연휴양림에서 진행하던 '제1회 장수 록펠러 페스티벌'과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예정이었던 '계북

면 참샘골 토마토랑 수박 축제'를 전면 중단했다.

송주섭 부군수는 "추가 지진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여진 발생을 대비해 지진발생시 주민행동요령 및 대피소 위치 등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하고, 구호물품 관리현황 및 수량확보에도 힘쓰라"고 지시했다.

이어 "산사태취약지역과 저수지 및 도로시설물 예찰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군민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전 부서가 협조해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군은 추가 지진에 대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단계를 지속 발령하며 전 직원 비상근무체제를 이어간다. /장수=고판호 기자

잼버리 참가자들, 무주에 모인다

18개국 1000여명 태권도원 방문 공연 관람·체험 등 진행 예정

무주군이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성지 무주' 알리기에 나섰다.

지역연계프로그램(영외과정활동)의 일환으로 오는 2일부터 5일, 8일부터 10일까지 총 7회(1회 160명)에 걸쳐 진행되는 행사에는 영국 등 18개국 1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이 함께한다.

참가자들은 설천면 소재 태권도원에서 태권도 품새와 호신술, 익스트림, 태권댄스로 구성된 공연을 관람하고 태권체조를 직접 배워보는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이외 '모노레일 타고 태권도원 전망대 투어'를 비롯해 태권도의 가치와 역사를 한 자리에서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국립 태권도 박물관 견학'도 마련해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

고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과 다시 찾고 싶은 무주를 만들겠다는 염원을 담아 이번 지역연계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전 세계에 대한민국을 알리고 더 나아가 전라북도도 무주, 태권도를 각인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호평 자자한 행사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제25회 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역연계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안전을 위해 태권도원 내 무주군 관광안내소에 종합상황실(현장상황실)을 마련할 예정으로, 무주군청(보건의료원 포함) 공무원들이 운영과 의견지원(응급환자 현장 처치 및 앵벌린 스톱을 이용한 후송 지원 등)등을 총괄하고 무주군자원봉사센터(자원봉사자)에서 활동운영과 통역 등을 지원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휴가철 관광지 물가 안정 총력

무주군이 휴가철을 맞아 관광지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7~8월 덕유산과 구천동 계곡, 무주덕유산리조트 등을 찾는 관광객이 집중되는 무주구천동을 중심으로 무주군 전역에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지난 7월 중순부터 관내 의식업조합(지부장 고낙춘)과 구천동음식업식당협회(회장 이덕순), 구천동숙박업협회(회장 김정남), 소비자보호센터(이사 조경자)가 함께 물가안정 간담회와 캠페인을 펼치며 상인들의 동참

을 이끌어 내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구천동 상가 내 업소들을 수시로 방문해 요금담합과 바가지요금, 호객행위 등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각 시설 및 종사자들의 청결과 위생관리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줄 것을 강조하고 있다.

관내 일반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물가안정을 위한 협조' 서한문도 발송해 주의를 환기시켰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소식통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재개장

진안군은 시설 개편으로 휴장했던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8월 1일 재개장한다.

군은 이번 휴장 기간을 이용해 공조설비 및 천장 교체, 기계실 설비교체 등 공사 및 수조 청소와 환경정비를 실시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시설 조성에 힘썼다.

특히 수영장 재개장을 하는 8월 1일부터는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외부 신발 착용을 제한하며 이에 실내용 슬리퍼를 비치해 더욱 위생적이고 쾌적한 생활체육시설이 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은 길이 25m의 레일 5개와 유아풀 1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시간은 평일 06시부터 22시, 토요일 06시부터 18시, 일요일 09시부터 18시까지다. 매일 1회 소독을 위한 휴식시간(12~13시)을 갖는다.

또한 어르신,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강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수영장을 찾는 군민들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군, 폭염 대비 주요 농작물 중점관리지도

장수군은 지난날 31일부터 2주 동안 장마 이후 폭염대비 주요 농작물 중점관리지도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작물 중점관리지도도는 장마 이후 폭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관내 농업을 직접 찾아가 예외사항을 정취하고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영농 현장을 지도한다.

벼는 고온에서 불임정해, 수량 및 품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을 깊게 관수해 증발산량에 의한 식물체 온도를 억제해야 한다.

사과는 고온 시 과실 호흡과 다로 과실비대를 저해하고 일소(햇볕태임) 피해 및 잎 가장자리가 타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일소과 경감을 위해 미세 살수 및 햇빛가리개를 설치하고 내부·외자간 가지자를 정리해 꽃눈분화를 촉진해야 한다.

/장수=고판호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

